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9

몸-그리스도가 되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  
그 영을 마심으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성경:고전 10:4, 12:12-13, 요 4:14, 23-24

- I. 만일 우리가 신성한 경륜에 따른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고전 10:3-4, 12:13.
- A.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에 있는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킨다.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물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출 17:6, 요 7:37-39, 고전 12:13.
  - B. 영적인 물, 곧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과 부활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전 10:4, 요 14:20, 고후 1:9.
  - C.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마심을 통해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와 유기적으로 하나되시어 우리의 생명과 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고전 10:4, 골 3:4, 10-11.
- II. 우리는 몸-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을 마심으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고전 12:12-13.
- A.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 모두이시다—골 1:18, 2:19.
    - 1. 그리스도께서 머리와 몸 모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몸-그리스도이시다.
    - 2. 그리스도께서 몸-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더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마 16:18, 고전 12:12, 행 9:4-5.
    - 3.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을 가지고 계신다. 개인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단체적으로 그분은 몸-그리스도이시다.
  - B.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누림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다. 그리스도를 몸-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은 다만 그분을 한 방면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마심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다—골 2:9, 고전 12:13.
  - C. 고린도전서 12 장 12 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1. 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과 합병되신 그리스도이시다.
    - 2.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구성된다—고전 11:3, 12:12, 27.

- D. '왜냐하면'(영어 회복역 참조)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은 12 절의 연장과 정의와 설명이다.
1.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며 이 몸은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고전 12:13-14, 24, 27.
  2.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인 우리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고전 12:13.
    - a.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영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고후 3:17.
    - b. 우리는 모두 한 영,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한 몸 안에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이 한 영을 마셔야 한다—고전 12:13.
    - c. 결국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충만되고 넘치고 적셔지고 침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이며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 몸은 그리스도 자신이다—고전 6:17, 12:12.
    - d. 그리스도 자신이신 그 영이 몸-그리스도가 되셨다—고후 3:17, 고전 15:45 하, 12:12-13.
    - e.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그리스도, 곧 몸 안에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전 12:13, 15:45 하.

**III. 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며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다—요 4:14, 23-24.**

- A.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는 영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신성한 실재는 진실함이 되며 그 진실함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경배로 아버지를 경배한다—요 4:23-24.
- B. 요한복음 4 장의 주님의 말씀은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안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경배를 보여준다.
  1. 주님이 말씀하신 경배는 아들 안에서와 그 영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의 경배, 곧 신성한 분배에 의한 경배이다—엡 2:18, 3:14-21.
  2. 만일 우리가 참된 경배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곧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후 13:14.
  3. 하나님의 분배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배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관계된다—요 4:10, 14.
    - a.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요 4:24.
    - b.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도록 그 영을 마셔야 한다—요 4:14, 고전 10:3-4, 12:13.
  4.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더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즉 하나님의 분배 안에 있으며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경배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경배를 갖게 될 것이다—요 4:10, 23-24.